

시대 맞는 규제개선... 농촌 활력 불어넣다

농진청 권재한 청장, 올해 규제혁신 추진 상황 점검 회의 주제... 발굴 등 내년 추진 방향 모색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올해 규제혁신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 추진 방향을 모색하는 '제2차 규제혁신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청장 주재로 25일 본청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소속 기관장과 실·국장들은 올해 추진한 규제혁신 과제 전반을 점검하고, 내년에 추진할 규제개선 과제를 우선 발굴 자체 검토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절차 간소화, 부담 완화, 경제 활성화 등이 포함된 규제개선 과제 21건을 완료했거나, 내년까지 마무리할 일정으로 추진 중이다.

농촌진흥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는 농업인·농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신산업 육성을 진작시키는 과제 등 총 12건을 발굴해 규제개선을 지속해서 이어갈 계획이다.

가축분 고체연료 연소 후 다량 발생하는 소각재를 활용한 비료 생산·판매는 비료공정규격에 포함되지 않아 불법이지만, 관련 물질 실험을 마무리,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자 협의 후 기준을 추가하기 위해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해초추출물에 함유된 천연생장조절물질의 비료공정규격 설정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돼지고기 삼겹살 내 지방함량을 세분화해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게끔 품질기준을 마련하도록 관련 부처에 정책건의를 준비 중이다.

사료용 옥수수 재해보험 기준도 생산비가 아닌 생산량 기준으로 실시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현장과 동떨어진 불합리한 기준 등을 개선토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체와 공동으로 출원 중인 특허를 자가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무상으로 기술을 이전에 민간의 기술

실시료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실용화를 촉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민간과 공동출원 중인 특허의 실용화율이 저조한 상황을 개선할 방침이다.

가급적 내년 초에 관련 규정을 개정, 실시를 앞당길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권재한 청장은 "규제로 작용하는 규정과 법령 등이 농업·농촌과 농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며 "내년에도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농산업체와 농업인이 겪는 어려움을 파악해 적극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36년 만에 연금 수급자 700만명 시대를 열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박모)은 이를 기념하여 700만번째 수급자 박모씨에 국민연금 수급서와 기념품을 전달했다.

국민연금, 수급자 700만명 시대 열어

65세 이상 어르신 중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 수급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36년 만에 연금 수급자 700만명 시대를 열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박모)은 이를 기념하여 700만번째 수급자 박모(63)씨에게 국민연금 수급증서와 기념품을 전달했다.

박씨는 1988년 4월 2일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여 반납금과 추납보험료를 포함하여 28개월분 보험료 4,396만원을 납부했다. 또한 다자녀 부모에게 주어지는 출산소득 혜택도 받아, 가입기간 18개월을 추가로 인정받았다. 그 덕분에 월 4만7,000원이 늘어난 90여만원의 연금을 이번 달부터 매월 받는다.

이날 박씨는 "반납금과 추납보험료를 납부해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 게 참 다행이고, 늦게 얻은 막내딸 덕분에 연금을 더 받는 것

도 의미가 있다. 이번 달부터 매월 꼬박꼬박 들어오는 90여만원은 내게 너무나 소중한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정태규 연금아사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라며, "이는 국민연금이 노후 안전망으로 국민 노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의미인 만큼, 커다란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매월 연금 3조6,000억원을 지급하고 있다.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88만 3,000명이고,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4만4,000명이다.

/김옥기기자

전북은행, 장기 미거래 신탁 계좌 주인 찾아주기 운동 실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27일부터 12월 13일까지 '장기 미거래 신탁계좌 주인 찾아주기 운동'을 실시한다.

신탁 만기일 또는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계좌를 대상으로 잔액 5만원 이상 계좌를 보유한 고객에게 우편 또는 전화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장기 미거래 신탁을 보유한 고객은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전북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조회 및 해지가 가능하며 인터넷뱅킹 또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의 소중한 금융 자산을 지켜 드리기 위해 매년 '장기 미거래 신탁 찾아주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코엑스 푸드워크 계약·현장매출 실적 1억7천만원 성과

바이오진흥원, 농식품 창업아카데미 수료생·도내 전통식품 기업 판로 개척 지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과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식품 창업아카데미 수료생 및 도내 전통식품 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20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9회 서울국제식품산업전'에 참가했다.

이번 서울푸드워크에서는 도내 우수 식품기업 22개사와 함께 전북공동관을 운영하여 현장판매 실적 7천만원, 계약금과 1억원 등 총 1억7천만원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바이어들과의 후속 협상결과에 따라 추가 납품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바이오진흥원은 박람회 기본 컨셉을 벗어날지고 주부들의 구매욕을 자극하는 색다른 컨셉으로 참가하여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기본 제품 부스가 아닌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내만의 삼시세끼, 오븐밥 등 이색 부스와 세프북 착용으로 차별화된 전북관을 운영하여 소비자의 관심을 주목시켰다.



바이오진흥원만의 독창적인 마케팅이 추가된 행사에 참가한 한 기업 대표는 "이번 박람회는 제품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소비자 및 바이어의 실질적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이와 같은 지원 프로그램이 지속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특히 '동선식품', '홍삼이생강날 때', '초이리브루어리'는 현장의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국내 남쪽 4건의 현장계약을 이뤘고, 여러건의 추가 계약상당으로 많은 관심을 끌었다. 또한, '무엔즈고궁'은 '참기름 아이스크림'을 선보여 수많은 인파와 문전성시를 이루는 놀라움을 자아냈다.

바이오진흥원만의 독창적인 마케팅이 추가된 행사에 참가한 한 기업 대표는 "이번 박람회는 제품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소비자 및 바이어의 실질적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이와 같은 지원 프로그램이 지속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전은, 군산시에 '딸에게 보내는 선물' 통해 따뜻한 위로 전해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이 군산시 저소득 여성 청소년들을 위해 450만원 상당의 보건 위생용품 세트 150박스를 25일 군산시에 기탁했다.

이번 기탁된 보건 위생용품 세트는 전북은행에서 딸에게 보내는 선물이라는 사회공헌사업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건용품(보건 위생용품 4종, 찜질팩, 파우치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원될 예정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북자치도, '일자리 거버넌스 실무위원회' 첫 개최

민·관·산·학 협력 통해 일자리 창출 모색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지난 22일 일자리 거버넌스 대표협의체 중심 기관 팀장 과장급 실무자가 참석해 지역 고용 활성화를 위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9월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 거버넌스의 후속 조치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번 실무위원회는 산·학·연·관 28개 유관기관이 참여해 각 기관별 일자리 사업을 공유하고 지역 내 일자리 현안과 산업별 수요에 맞는 정책 방향

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일자리 거버넌스 활성화와 지속성을 위한 공동사업 운영 △지역특화 산업 활성화와 연계한 특화산업 분과 구성 △청년 등 세대별 및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방안 등이 다뤄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채용박람회 공동주최와 지역고용 지표 개발 등 공동사업 운영과, 특히 인력 양성기관과 대학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정착 지원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전북형 일자리 플랫폼 구축을 통해 산학연관 협력을 강화하고, 체계



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정책을 실행할 것을 결의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실무위원회를 통해 일자리 거버넌스의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전북농협, 이마트 전북 우수농산물 특별판매전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과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는 전북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의 판매 확대와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전국 이마트(128개)매장에서 전북농산물 대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북농산물 판매 확대를 목적으로 이마트와 함께 2016년부터 9년째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매년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농협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전북지역에서 생산되는 사과, 배, 샤인머스켓 등 제철 농산물을 판매했다.

전북농협과 전북자치도는 앞으로도 전북 농산물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제철 맞은 신선한 전북농산물을 대형유통판매장 및 전북생생장터, 라이브 커머스 등 온라인마켓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판촉행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농협 김영일 본부장은 "전북 우수농산물의 홍보 및 판로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하고, 전북광역브랜드 '예담채'를 구입점으로 전북 원예농산물 통합마케팅 6천여 원을 빠른 시일 내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해 더(The) 청진하는 전북농협을 만드는데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이만호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